

대구주보

새로운 서약, 새로운 희망

용서와 화해의 해, 냉담 교우 회두와 선교에 힘쓰시다!

연중 제5주일 | 2019. 2. 10.(다해) 제2146호



사진 / 양병주 분도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루카 5,4)

발행인 | 조환길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편집 | 문화홍보국 인쇄 | 대건인쇄출판사 등록 | 2017. 11. 13 대구 다04660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 전화 | (053)250-3048~9 이메일 | jubo@dgca.or.kr 홈페이지 | www.daegu.jubo.or.kr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현대인들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을 통해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더 큰 고독감을 느낍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시대가 너무 가벼운 것만을 추구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도 가볍게 만나고, 사랑도 가볍게 하고, 쉽게 만나고 헤어집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아마 너무 쉽게, 너무 빨리 얻었기 때문에 쉽게, 빨리 잃어버리고 싫증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볍고 빠르고 쉬운 것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행태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더 쉽고 빠르게 하느님을 체험하고, 신앙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좀 더 노력하고 인내하고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거기에서 내 방식대로, 내 편한 대로 하느님을 찾고 체험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하느님은 안 계시는 모양이다.’, ‘이 신앙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포기해버립니다. 쉽고 가벼운 것을 추구하는 이 시대는 과거보다 하느님을 만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었는지 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겔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마을 카파르나움 출신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어부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루카 5,4)

베드로는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며 자기가 알고 있던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명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곳은 더 빨리, 더 쉬운 방법이 아니라 천천히 인내하며 자신의 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주님을 만나라는 뜻입니다. 많은 영성가들이 하느님을 대면하고 그분과 일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묵상과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한순간에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안으로 파고 들어가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자신을 비우게 되고 하느님을 찾고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주님은 땀을 흘리지 않고서 가볍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수고와 땀을 흘려야만 하느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어떤 보물보다 귀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지, 쉽고 편하게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진정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깊은 곳으로 가서 주님께 나를 내맡기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는지 되돌아보도록 합시다.

김정희 바오로 신부 | 영남교회사연구소 연구위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마태 10,8)

이 말씀은, 거저 주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느님 나라가 자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제자들을 파견하며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모든 자녀, 특별히 병자들의 어머니로서 착한 사마리아인이 보여 준 것과 같은 너그러운 행위가 가장 믿음직한 복음화의 수단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병자들을 돌보는 데는 소명감, 온정, 그리고 상대방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 주는 손길처럼 기꺼이 베푸는 소박하면서도 직접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버리는 문화와 무관심의 문화에서, ‘내어 줌’은 개인주의와 사회 분열에 대항하는 가장 적절한 패러다임이 됩니다. ‘내어 줌’은 단순히 재산이나 물건의 이전이 아니라 자기 증여를 의미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상호 인정이 사회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 각자는 가난하고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데에는 부모님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또한 삶의 모든 단계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다른 이의 도움에 의지합니다. 우리는 타인이나 어떤 상황 앞에서 ‘피조물’로서 우리가 지닌 한계를 언제나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진실을 솔직히 인정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삶의 중요한 미덕인 연대를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그와 같은 깨달음은 우리가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개인과 공동체 모두의 선을 증진하도록 이끍니다. 혼자서는 그리고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우리 한계들을 극복할 수 없기에,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다른 이에게 의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난을 굽어 살피시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선물

들을 베풀어 주시므로, 우리 자신의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저 주는 무상성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에 누룩이 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사회보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착한 사마리아인의 영성을 호소력 있게 실천하는 이들입니다. 의료에서 영적 보살핌까지, 의료 시설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자원봉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세속화된 세상에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교회의 현존을 드러내는 표지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자는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좋은 벗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내어 주고자 하는 깊은 바람에서 나온 가치와 행동과 생활양식을 전달합니다. 또한 이는 더욱 인간다운 의료를 실현하는 방법이 됩니다.

무엇보다 가톨릭 의료 기관들에서 무상성의 정신이 두드러져야 합니다. 가톨릭 의료 기관들은 복음의 빛으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의료 기관은 영리보다는 인격적 보살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거저 줌의 기쁨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척도입니다.

병자의 치유이신 성모 마리아께 여러분 모두를 맡겨 드립니다. 대화와 환대의 정신으로 우리가 받은 선물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는 형제자매로 살아가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고, 이타적인 봉사의 기쁨을 알 수 있도록, 성모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저는 사랑과 기도로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저의 진심 어린 교황 강복을 보내드립니다.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이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아지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강아지는 자신의 존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다가옵니다. 또 어떤 색다른 사물을 발견하거나 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가장 먼저 그 이름을 찾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바로 아버지를 드러내는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 이름 안에는 많은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그 이름을 ‘하느님’이라고 통상적으로 부르지만 그 하느님은 다른 언어권 안에서, 혹은 다른 문화 안에서는 전혀 다르게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하느님이라는 명칭이 곧 하느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올바르게 부르기 위해서는 그분이 지니신 뜻을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가 지닌 사랑으로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학생이 논문 지도를 받은 교수님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는 사고를 쳐서 그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교수님으로부터 배운 학업을 바탕으로 그 이름을 빛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드러내고 싶은 이름, 그것은 바로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요한 13,35)

우리가 하느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분의 이름을 세상에 빛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랑’이라는 과제를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때에 찌든 황금을 빛내기 위해서는 열심히 갈고 닦아야 하듯이 마찬가지로 그분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낡은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위해서 성실히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사랑이신 그분의 이름을 세상에 환히 드러내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연을 위한 기도

생명의 하느님,
다른 피조물에 대한 사랑을 깨우쳐 주소서.
그들이 숲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기억하겠나이다.
그들이 도시에서 겪는 푸대접을 기억하겠나이다.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 주신 보호자,
섭리자의 역할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 주게 하소서.
우리가 들짐승을 잔인하게
대하지 않도록 금지하소서.

존경심에서 나오는
부드러움을 우리에게 주소서.
나보다 약한 피조물을 경애하도록 가르쳐 주소서.

모든 생명의 물줄기는
당신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것,
생명이란 지금도 우리에게 신비일 뿐,
우리가 짐승과 새와 친하도록 도와주소서.
그들의 배고픔과 목마름, 피곤함과 추위,
집을 잃고 헤매는 고통에 공감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
그들의 어려움도 끼워 넣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조지 마테슨(George Matheson, 1842~1906)
스코틀랜드, 시각장애인 선교사

지혜의 숲

예 언

“저는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싶습니다.”

“마흔 다섯 살이 될 때까지 비웃음과 무시를 당하고, 굶주릴 각오가 되어 있나?”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흔 다섯이 넘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익숙해져 있을 걸세.”

오늘의 전례

제 1 독 서	이사 6,1-2,7,3-8	제 2 독 서	1코린 15,1-11	복 음	루카 5,1-11
화 답 송	◎ 주님,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 알렐루야.				
영 성 체 송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교구 제1주보성인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 미사 및 선교사제 파견식

일시_ 2019. 2. 11(월) 11:00 장소_ 성모당

주례_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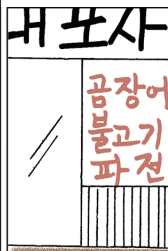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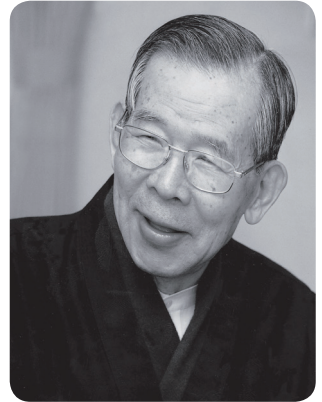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선종 10주년

올해는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감사의 메시지를 남기고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신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바보 같은 사랑, 밥이 되어주는 나눔을 실천하시며 세상에 빛이 되어 주신 추기경님을 기억하는 뜻깊은 자리에 신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0주기 추모 미사 안내

일시_ 2019. 2. 16(토) 11:00 장소_ 주교좌 계산성당

주례_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



잃어버린 사람(?)도 다시 낚는 어부로..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2월 11일(월) 10:30 범어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2월 11일(월) 19:30 꾸르실료교육관
경주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2월 11일(월) 11:00 황성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2월 12일(화) 11:30 계산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2월 11일(월) 11:00 신평성당	김천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2월 13일(수) 10:00 평화성당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2월 11일(월) 11:00 계산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2월 16일(토) 11:00 성모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2월 11일(월) 11:00 월성성당	-	-

성소 | 피정

천주의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2.16(토) 14:00

장소: 서울 개화동 수도원

문의: (010)3800-1579

대구 예수마음기도 무료 피정

일시: 3.9(토) 10:00~17:00

장소: 바틀로교육센터(대구 파동)

대상: 하느님과 깊게 만나고 싶은 분

신청: 김마리아 수녀, (010)9620-5603

교육 | 모집 | 기타

신구약성경 맵잡기 안의 거룩한 독서 모임

접수: 2.11(월)부터 선착순

강의: 월·화(밤반), 화·수·목(낮반)

장소: 경산어버이성경학교 내

문의: (010)2512-4627

2019년 겨울씨성서모임 신입생 모집

개강: 2.25(월)

구약반: (월) 10:00, (목) 20:00

신약반: (금) 10:00, (월) 20:00

심화반: (월) 10:00, (수) 20:00

문의: (010)4106-4627 / (010)6520-4627

2019년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자 모집

마감: 2.28(목)

장소: 프란치스코눔(월배성당 뒤)

대상: 만 53세 이하의 가톨릭신자

지원자 O.T: 3.2(토) 14:00

문의: (010)3839-9203

성바오로수도회 말씀으로 마음 치유

일시: 3월부터 10주간

시간: 매주 화 10:00~12:30

매주 금 19:00~21:30

대상: 30대~60대 신자

문의: 성바오로서원, 256-4592

25회 글로벌 영어연수 참가자 모집

출국: 3.2(토) 8주 이상 선택

국가: 필리핀, 캐나다

대상: 성인 및 대학생

특징: 학비 일부 지원 사업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 과정

원서마감: 2.13(수)

과목: 성서, 교의, 전례 등 26과목

대상: 가톨릭 수도자, 평신도

문의: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제주교구 운전기사사도회 제주도 관공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 (010)4566-6476

살레시오회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학생 모집

일시: 3월~12월(2월 예비학교)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혜택: 교육비 전액 무료, 수당지급,

취업(최근 5년 평균 취업률 96.4%)

대상: 15~30세 남자 / (02)828-3600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출발: 매월 1회, 4박 5일 / 64만원

지역: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주관: 가고시마교구 / 지도: 송진욱 신부

문의: (010)3005-9028

성가양로원(무료양로원) 어르신 모집

위치: 경북 칠곡군 동명면 한티가는 길

내용: 매일미사와 공동기도, 산책로

대상: 65세 이상 일상생활 가능하신

기초생활수급자(남자 어르신도 가능)

문의: (054)974-8122 / (010)6485-7796

대구가톨릭치매센터 입소어르신 모집

치매, 중풍 어르신 요양원입니다.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여)

문의: 615-2141 / 616-2141~2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 전문
경대병원 응급실 건너편

T.(053)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

이 원 의 료 기

혈압계·혈당계·당뇨소모성재료
휠체어·주사기·보호대·투·환기
주열기·체온계·욕창매트·환자용품
안마기·실버카산소치료가·필립기

변상범(도미니코), 김민숙(아나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053)256-2512(대표), 2513



(주)한투어 성지순례전문

이스라엘, 성모발현지, 프랑스 순례
터키/그리스 성지순례 모객중

☎ 053-427-7090

안상덕 요한, 김 마리아막달레나
<http://www.hantourcatholic.com>

헤 렌

디자인하우스

프리미엄 디자인가구

박성용(알벨도) 대구시 북구 엑스코로 10
권나경(수산나) (엑스코 가구를 지하2층)
Cell : 010 7766 3198

백내장수술, 근시교정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 호 성(아오스딩)
의학박사 전문의 조 영 수(다미아노)
전문 의수술(소피아), 홍정흠(대건안드레아)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안과

의학박사/전문 의 김 기 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봉산문화거리 입구 미래에셋증권대우 9층

☎(053)257-8875

www.kisaneye.co.kr

월명성모의집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성모님 사랑안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보금자리~

60세 이상 독립 주거생활이 가능하신 분

☎(054)434-2898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

행사 | 모임

성김대건성당 독서콘서트

일시: 2.23(토) 10:45, 성김대건성당
주제: 김수환 추기경의 영성과 삶
강사: 이충렬 작가
문의: 성김대건성당, 742-2504

대구가톨릭학술원 2월 정기학술행사

일시: 2.19(화) 17:30 미사
장소: 꾸르실료교육관 4층 성당
주제: 시민교육의 방향 모색_인권중심
강사: 홍은영 교수(가톨릭대학교)
참가비 무료 / 문의: (010)7190-1258

교육 | 모임

2월 가나강좌

일시: 2.17(일) 10:00~17:30(시간엄수)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마리아관
참가비: 1인 2만원(당일 신청) 무료주차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123차 선택 주말

일시: 3.8(금)~10(일), 꾸르실료교육관
대상: 20~35세 미만 미혼
문의: 교구 청년국, (010)9881-8806
<http://www.dcy.co.kr>

42기 성모마리아 어머니학교(5주)

일시: 3.14~4.11 매주 목 19:00
장소: 평리성당
대상: 모든 어머니
마감: 3.11(월)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황금 성경대학 모집

일시: 3.5(화)~6.4(화), 황금성당
주간반 10:00~12:00 / 야간반 20:00~22:00
주제: 모세오경
강사: 윤일마 수녀(성바로로팔수도회)
문의: 대구황금성당, 762-1700

시편 성가 연주

일시: 2.10(일) 15:00
지도: 김정선 수녀 / 회비: 1만원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선교교육의 날(매달 2, 3, 4주 월)

일시: 2.11, 18, 25(월) 11:00~14:00
장소: 제1대리구청 강당
지도: 이창수(야고보) 신부
대상: 선교위원, 선교에 관심 있는 분
문의: 선교센터, 781-6100

관덕정 국내 성지순례

일시: 3.14(목) / 3.17(일)
장소: 원주교구 배론성지
비용: 3만원(중식 포함)
신청: 2.13(수)부터 선착순
문의: 관덕정, 254-0151

전례생활연구회 월례 공부 모임

일시: 2.11(월) 19:30~20:30
장소: 대안성당(중앙로역 4번 출구)
주제: 미사경본 총지침
대상: 전례봉사자, 전례에 관심 있는 신자
문의: (010)3811-2618 / (010)3524-3217

부부 둘만의 힐링여행 대구 ME주말

368차 ME주말: 2.22(금) 19:00~24(일)

369차 ME주말: 3.22(금) 19:00~24(일)

장소: 한티파정의집 /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제대꽃꽂이봉사자를 위한

아카데미 제11기생 모집
문의: 전례꽃꽂이연구회, (010)2501-1543

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생활영어(화, 목), 바이올린(화)
성가반주(수, 토)
위치: 교대역 3번 출구 앞
신청: 476-6211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난타·고전무용·장구, 성가반주오르간,
오카리나, 왕초보관광영어, 제대꽃꽂이,
피아노, 발성법, 사범자격과정꽃꽂이,
가족·섬유공예, 가곡성가, 원어민영어,
미술심리2급자격과정 / 신청: 254-6115

채용 | 안내

삼덕유치원 부담임교사 채용

자격: 유치원 정교사 2급(졸업예정자 포함)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청: smessage@hanmail.net
문의: 782-9380

청주 갈릴리통합어린이집 특수교사

채용(유아특수, 초등특수 전공)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제출: galilee@hanmail.net
문의: (043)212-3211

족부전문정형외과의원
(발·발목·스포츠 질환)

만족정형외과

원장 최재혁(요한)
☎ 255-8119

3호선 범용역 2번출구 (농협방향 20m)

가람소방방재(주)

- ◆ 소방시설점검 ◆ 소방안전관리대행
- ◆ 종합정밀점검 ◆ 소방관련기술교육
- ◆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전문공사

대구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 이앤씨노비즈타워 B108호
대표전화 (053)600-8485~9 HP 010-4245-0507

대표이사 소방시설관리사 김진석(스테파노)

신랑각시결혼

전문작·초혼·재혼·만혼

의사, 약사, 교사, 회계사, 한의사 환영
이원교(요안나) | 25년 경력

053)471-0707 | 010-9688-7953
<http://www.sk1004.co.kr>

남구 봉곡동 영대병원 사거리

2대 반세기, 건강관 관철, 척추

백두병원

어깨 무료 발목 관절경수술

정형외과 전문의 백두우 아오스딩, 배상근 베드로
유천치안센터 옆 T. 425-5919
대구시 달서구 월배로 18(진천동)
대학병원급 3.0T MRI, CT
공단검진 지정병원 / 위, 대장 내시경

김덕영 성형외과

대구은행 본점 옆 교보생명 건너편
한영아트센터 2층

(053)759-0888

의학박사 전문의 **김덕영** (스테파노)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신희식(루가) 신부

T. (053)630-3000~1

진료분야 : 조현병, 우울증, 알코올 중독 및 기타 정신질환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 010-3530-7700
010-3817-0111

양호진 요셉, 장효선 데보라

암·재활·소화기·통증·건강검진

Happy! 3인인병원

의사와 한의사가 함께 진료합니다

대구가톨릭대병원 입구 | ☎ 053)670-6000